

새로 발굴된 번역소설 필사본 『후서유기』에 대하여*

박재연**

<目 次>

1. 서론
2. 『後西遊記』의 조선시대 유입과 향유
3. 번역필사본 『후서유기』의 서지 사항
4. 번역필사본 『후서유기』의 특징
 - 1) 번역 특징
 - 2) 어휘 특징
5. 결론

1. 서론

조선시대에 많은 명청소설들이 유입·향유되었고 한글로도 번역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각종 문헌 기록과 서목, 그리고 국내에 현전하고 있는 중국 판본, 한글번역본의 현황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조선시대에 유입된 중국소설은 수백 종이며 실물로 확인되는 번역소설은 80여 종에 이를 정도로 상당하다.¹⁾

여기에 번역소설 필사본 1종이 추가로 발견되었는데 새 자료는 최근 칸옥션 제 4회 미술품경매에 출품된 『후서유기』(20권 9책)이다.²⁾ 『후서유기』는 중국 四大

* 이 연구는 2016년도 선문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SunMoon University Research Grant of 2016).

** 선문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

1) 선문대학교 중한번역문헌연구소, 『조선시대번역소설희곡자료총서』(1~74), 1995~2013. 민관동·김명신, 『조선시대 중국고전소설의 출판본과 번역본 연구』, 서울, 학고방, 2013.

2) 『칸옥션 제4회 미술품경매 도록』, 184) 후서유기 9책, 136쪽. 경매일시: 2017년 9월 13

奇書로 불리는 『西遊記』의 속서 『後西遊記』를 번역한 것이다.

『後西遊記』는 전체 40회로 내용은 玄奘法師 일행이 眞經을 가져오지만 200년 뒤 왜곡된 불경 해석으로 인해 중들의 탐욕으로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해져 백성들이 邪道의 길로 빠지자, 조정에서 大顛和尚(唐半偈)를 불러 '眞經'의 해설 서인 '眞解'를 구해오게 한다. 이에 大顛和尚이 孫小聖, 저팔계의 아들 猪一戒, 사오정의 제자 沙致和와 함께 서역에 다녀온다는 이야기이다. 비록 『西遊記』만 못하지만 해학과 풍자가 녹아 있는 수작으로 평가 받고 있다.³⁾

『後西遊記』가 조선에 유입된 이후 한글로 번역되었다는 것은 演慶堂 『諺文冊目錄』과 「칙년명록」에 적힌 서목을 통해 확인되었지만 그동안 실제 번역본을 찾아볼 수 없다가 최근 그 존재가 확인되었다.

새 자료 한글필사본 『후서유기』는 비록 2책이 일실되어 9책만 남아 있지만 현존하는 유일한 번역본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본고에서는 『후서유기』 한글번역본 소개를 주요 논지로 하여 구체적으로는 서지사향, 번역양상, 어휘적 특징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2. 『後西遊記』의 조선시대 유입과 향유

『후서유기』가 우리나라에 유입된 시기는 최소 18세기 중반 이전으로 판단된다. 관련 기록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中國小說繪模本』(1762): 〈小序〉……其中又有大中小帙曰「西遊記」, 曰「後西遊記」, 曰「東遊記」……
- 나. 『緝敬堂曝曬書目』: 後西遊記 八本
- 다. 『集玉齋書目』: 後西遊記 八卷
- 라. 「小說經覽者」書目(1762): 後西遊記

일.

3) 劉廷璣, 『在園雜誌』卷三: “如『西遊記』乃有『後西遊記』, 『續西遊記』. 『後西遊記』雖不能媲美於前, 然嬉笑怒罵, 皆成文章, 若『續西遊記』則誠狗尾矣.”

- 마. 『海南尹氏群書目錄』(1927): 後西遊記
- 바. 演慶堂 『諺文冊目錄』(1920): 後西遊記 二十冊
- 사. 「책널명록」: 후서유기

『후서유기』에 관한 기록은 현재까지 7곳에서 확인된다. 가)~마)는 중국본, 바)~사)는 한글본에 대한 기록이다. 그중에서도 가)~다)는 왕실, 라)~마)는 해남 윤씨가 기록이다.

1762년 사도세자가 쓴 『中國小說繪模本』 「小序」에 『西遊記』와 함께 『後西遊記』가 언급되어 있다. 나) 『緝敬堂曝曬書目』은 집경당이 건립된 1890년경부터 소장 자료가 집옥재로 이동된 1891년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이다.⁴⁾ 다) 『集玉齋書目』은 1907~1910년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⁵⁾ 집옥재는 고종이 경복궁이 중건된 이후 神武門 안에 세운 서재이다. 『緝敬堂曝曬書目』과 『集玉齋書目』 모두 『後西遊記』 서명과 책 수가 기입되어 있다. 8책이라는 같은 책 수를 적고 있는 점으로 보아 『집경당』에서 수장하였던 책이 그대로 『집옥재』로 건너간 것으로 판단된다.

해남 윤씨 집안의 기록을 보면 윤덕희(1685~1766)가 1762년에 작성한 「小說經覽者」에 『後西遊記』가 적혀 있다. 그리고 1927년 조사·기록한 『海南尹氏群書目錄』⁶⁾에도 같은 서명이 적혀 있다. 『海南尹氏群書目錄』에는 전체 2,635부의 목록이 적혀 있는데 그중 중국통속소설은 40여 종이다. 현재 해남 윤씨가에 중국본 『後西遊記』는 전하지 않는다. 그러나 해남윤씨 집안에서 윤덕희 사후로도 20세기 초까지 전해져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의미 있는 기록이다.

현재 국내에 전하는 『後西遊記』 판본들은 모두 연화자본이나 석인본으로 후대의 것들이다.⁷⁾ 왕실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後西遊記』, 「小說經覽者」에 언급된

4) 황정연, 「고종연간 집경당의 운용과 궁중 서화수장」, 『문화재』 제40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223쪽 참조.
5) 이종목, 「조선시대 왕실도서관의 收藏에 대하여」, 『서지학보』 26, 2002, 35쪽.
6)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마지막에 기록된 『海南尹氏群書目錄卷末記』에 의하면 소장자는 全羅道 海南君 邑內面에 거주하는 尹定鉉이다. 1927년(소화 2년) 11월에 조사를 시작하여 그 이듬해 5월에 謄寫 校正을 완료, 같은 해 12월 7일에 검열을 완료하였다.
7) 국내 소장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 『繡像後西遊記』, 石印本, 4卷4冊, 辛亥(1911)仲秋上海江

『後西遊記』 모두 전하지 않는다.

한글번역본 『후서유기』에 대한 기록은 演慶堂 『諺文冊目錄』과 「칙널명록」 2곳에서 보인다.

演慶堂 『諺文冊目錄』은 1920년(大正 9년) 5월에 조사 작성된 왕실 서목이다. 당시 20책 분량의 한글번역본 ‘후서유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칙널명록」은 1890년대 민간에서 작성된 목록이다. 연세대 소장 『국조고사』 권3 말미에 ‘칙널명록’이란 제명 아래 197종의 소설 목록 안에 ‘후서유기’가 적혀 있다.⁸⁾ 궁중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읽었던 사실을 알려주는 기록이다.

이상의 기록들을 종합하면 조선시대 18세기 중반 이전에 중국 판본 『後西遊記』가 궁중, 사대부가에 유입되었으며 1927년까지도 현존하였으며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19세기 후반에는 한글번역본도 유통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번역필사본 『후서유기』의 서지 사항

한글필사본 『후서유기』는 전체 20권 11책 가운데 9책만 남아 있다.

앞표지는 ‘後西遊記’, 그 아래에는 ‘二, 三, 四...’ 冊次가 적혀 있다. 훼손되어 떨어져 나간 표지도 있다. 책의 크기는 28.5×19.3cm이다.

본문 첫 면은 한글로 ‘후서유기 권지○’이라 하여 제목과 卷次가 적혀 있고 이어서 회목과 회차를 제시하고 있다.

제1책은 일실되고 없으며 제2책은 권3,4, 제3책은 권5,6, 제4책은 권7,8, 제5책은 일실되었고 제6책은 권11,12, 제7책은 권13, 제8책은 권14, 제9책은 권15,16, 제10책은 권17,18, 제11책은 권19,20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제1책의 권1,2와 제5책의 권9,10이 빠져 있다.

左書林, 한림대 소장 ② 『繡像後西遊記後傳』, 石印本, 6卷6冊, 中華3(1914)上海章福記書局, 성균관대 소장 ③ 『後西遊記』, 新鉛活字本(中國), 8冊, 上海申報館, 전남대 소장.

8) 유춘동, 「『책얼명록』에 대하여」, 『문헌과 해석』 통권35호, 문헌과 해석사, 2006, 187-196쪽.



〈『후서유기』 9冊과 제2책 권지삼 첫 면〉

제3책(권5~권6)의 뒷표지에 ‘京畿道 利川君 雪星面 大竹里’라고 적혀 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후 사용된 지명이다.⁹⁾ 20세기 초 경기도 이천의 어느 집안에서 『후서유기』 한글번역본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각 책의 면수는 권3은 80면, 권4는 95면, 권5는 88면, 권6은 95면, 권7은 92면, 권8은 94면, 권11은 129면, 권12는 119면, 권13은 137면 권14는 131면, 권15는 108면, 권16은 104면, 권17은 122면, 권18은 132면 권19는 129면 권20은 119면으로 총 1,774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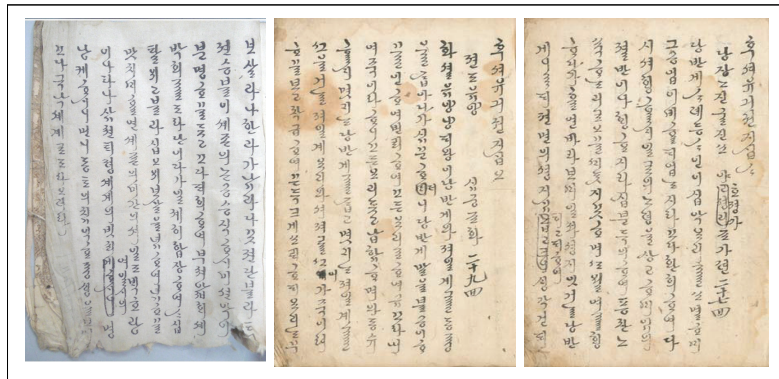
권6과 권16은 마지막 부분의 한 두 장이 낙장이고 권17은 앞부분이 훼손된 상태이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대체로 온전한 편이다.

매 면 9행, 매 행 20자 내외이며 유려한 궁체로 쓰여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필체로 적혀 있어 한 사람이 필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책의 특이사항 중 하나는 수정한 흔적들이 많다는 것이다. 잘못 쓴 글자는 검게 칠해서 지우고 해당 글자 우측에 고쳐 쓰기도 하였다. 빠진 글자를 추가한 것도 있고 풀어쓴 글자를 고쳐 한자어로 바꾼 것도 있다. 수정 내용은 조사 연결을 고치거나 빠진 구절을 추가한 것이 많고 반대로 한 두 어절을 삭제하거나 간결하게 가다듬은 것도 있고 회목명을 수정한 것도 있다.¹⁰⁾ 다른 번역필사본과 달리

9) 1914년 이전에는 음죽군 원북면으로 불리웠다. ‘대죽리’는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대산동과 효죽촌을 병합하여 대죽리라 하고, 실정면에 편입되었다.
10) 수정된 예는 다음과 같다. ‘업스며 → 잇시며(4:22), 괴로오물 구허라 → 괴로오물 풀너허

책 전반에 걸쳐 수정 흔적들이 나타나는데 번역 초고본으로 판단된다.



〈『후서유기』 권14 첫 면, 권15 첫 면, 권20 마지막 면.〉

전체 40회의 회목을 중국판본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회차	『후서유기』	金閨書業堂刊本 『後西遊記』(1793) ¹¹⁾
1~4	(권지일 1~2회) 缺 (권지이 3~4회) 缺	
5	(권지삼) 당삼장비세타스마 여리불육인득진희	唐三藏悲世墮邪魔 如來佛欲人得眞解
6	광군실현신조편 명불교고승출산	匡君失賢臣遭貶 明佛教高僧出山
7	(권지스) 퇴견승진심호법 당삼장현성봉경	大顯僧盡心護法 唐三藏顯聖封經
8	퇴견승승은구희 당조스전주슈심	大顯僧承恩求解 唐祖師傳咒收心 ¹²⁾
9	(권지오) 심원구의마 동토망서턴	心猿求意馬 東土望西天
10	심명청정법 반갈야호선	心明清淨法 棒喝野狐禪

여(4:96), 거허느니 → 거허거늘(5:8), 구허여 와야 → 구허여 온 후의(5:19), 스슬을 → 스슬의(5:27), 도저히 → 괴로이(5:54), 편벽도히 가르치들 → 편벽도히 극낙으로써 가르치들(5:54), 다른 말을 → 억지의 말을(5:74), 불죄라 → 조식라(16:13), 죽엇셔도 → 죽엇다 허여도(16:37), 무음 진남 → 심원(19:73), 본릭 유가 종지를 → 유가 본지를(20:116), 빗죄게 허시니 → 빗죄어 일시의(20:119) 등. 앞의 숫자는 권차, 뒤의 숫자는 쪽수이다.
11) 현존하는 판본 가운데 가장 오래된 판본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 本衞藏板本, 貴文堂重刊本(1821년) 등이 있다. 본고에서는 金閨書業堂刊本으로 비교하되 本衞藏板本과 다른 부분

회차	『후서유기』	金閭書業堂刊本 『後西遊記』(1793) ¹¹⁾
11	(권지륙) 후인블미기전과 외도슈회즉본가	後因不昧皆前果 外道收回即本家
12	일계인친 경과귀주	一戒認親 釘釘歸主 ¹³⁾
13	(권지칠) 결함뉴련 갈등괘이	缺陷留連 葛藤掛礙 ¹⁴⁾
14	금유기던평결함 묵무언참단갈등	金有氣填平缺陷 默無言斬斷葛藤
15	(권지팔) 가스미슈면함스 쇼턴봉하져착괴	假沙彌水面陷師 小天蓬河底捉怪
16	농음풍열심욕스 쇤성혈고골회춘	弄陰風熱心欲死 灑聖血枯骨回春
17	(권지구 17~18회) 缺 ~20 (권지십 19~20회) 缺	
21	(권지십일) 역중야흑난마싱 담저일홍음괴멸	域中夜黑亂魔生 潭底日紅陰怪滅 ¹⁵⁾
22	당장노봉오유절낭 쇼형자가위타헌공	唐長老逢迂儒絕學 小行者假韋馱獻供
23	(권지십이) 문필압인 금전착장	文筆壓人 金錢捉將
24	쥬루출무심 슈회인유쥬	走漏出無心 收回因有主
25	(권지십삼) 망화상수풍뉴죄과 초미인농화월괴관	莽和尚受風流罪過 俏佳人弄花月機關 ¹⁶⁾
26	긱병일심 쇼계십악	歸并一心 掃除十惡
27	(권지십스) 당장노진굴진쇼 야호정가쥬가편	唐長老真屈真消 野狐精假遭假騙
28	착통이괴무한셔 함입음양유스싱	鑿通二氣無寒暑 陷入陰陽有死生
29	(권지십오) 전도음양 심공조화	顛倒陰陽 深窮造化
30	쥬화농인 평심탈투	造化美人 平心脫套 ¹⁷⁾
31	(권지십륙) 쇼청녹적 슬진삼시	掃清六賊 殺盡三屍 ¹⁸⁾
32	쇼형자금즈방문명 저일계옥화검피협	小行者金箍棒聞名 豬一戒玉火鉗被夾
33	(권지십칠) 닝설방능세욕화 정스계부쥬심원	冷雪方能洗慾火 情絲繫不住心猿 ¹⁹⁾
34	악요정구중설성부 망화상복너동간괘	惡妖精口中設城府 莽和尚腹內動干戈
35	(권지십팔) 당장노청정무괘이 저일계탐진유견전	唐半偈清淨無掛礙 豬一戒貪嗔有牽纏 ²⁰⁾

회차	『후서유기』	金閭書業堂刊本 『後西遊記』(1793) ¹¹⁾
36	년화촌스식득식 중동스피마봉마	蓮化村思食得食 從東寺避魔逢魔
37	(권지십구) 소화상전주각사 악념라슈방기스	笑和尚傳呪却邪 惡閻羅授方起死 ²¹⁾
38	중간비폐신이구심 녀디슈화풍이중도	從肝脾肺腎以求心 歷地水火風而證道
39	(권지이십) 도녕산유무견블 득진히리거슈심	到靈山有無見佛 得眞解來去隨心
40	기경중강 득히증뎡	開經重講 得解證盟

대부분 같지만 일부 회목에서는 차이가 나타난다. 제25회의 “莽和尚受風流罪過 俏佳人弄花月機關”의 ‘佳人’을 한글번역본에는 ‘미인’으로 쓰고 있다. ‘俏’는 ‘俏’의 오각으로 판단된다. 제30회의 ‘造化美人 平心脫套’을 한글번역본은 ‘조화농인 평심탈투’로 쓰고 있다. 한글번역본의 오류는 아니고 원전에서 ‘弄’자를 ‘美’자로 잘못 쓴 것으로 판단된다. 제7회 ‘大顛僧盡心護法 唐三藏顯聖封經’과 제8회 ‘大顛僧承恩求解 唐祖師傳咒收心’의 ‘大顛’을 한글번역본에는 모두 ‘티전’으로 쓰고 있는데 ‘大’와 ‘太’는 통용자이기에 ‘티’로 읽은 것이다. ‘大顛’을 ‘티전’으로 쓴 예는 본문에서도 일괄되게 나타난다.²²⁾

많지 않지만 약간의 글자 출입이 발견되는 것은 한글번역본을 필사하는 과정에

은 각주로 처리하여 제시하였다. 기타 『後西遊記』 판본에 대해서는 『中國通俗小說總目提要』, 『古代小說百科全書』(修訂本), 『中國古代小說總目』(白話卷), 佐芝蘭, 『明末清初『西遊記』續書研究』, 四川大學 碩士學位論文, 2007 등 참조.

12) 本衙藏板本: 大顛僧承恩求解 唐祖師傳咒收徒

13) 本衙藏板本: 一戒認親 釘耙歸主

14) 本衙藏板本: 缺陷留連 葛藤掛碍

15) 本衙藏板本: 城中夜黑亂魔生 潭底日紅陰怪滅

16) 本衙藏板本: 莽和尚受風流罪過 俏佳人弄花月機關

17) 本衙藏板本: 造化弄人 平心脫套

18) 本衙藏板本: 掃清六賊 殺盡三尸

19) 本衙藏板本: 冷雪方能洗欲火 情絲系不住心猿

20) 本衙藏板本: 唐半偈清淨無掛碍 猪一戒貪嗔有牽纏

21) 本衙藏板本: 笑和尚傳咒却邪 惡閻羅授方起死

22) 나의 범명은 티전이오 금상 황데 사호하시디 만게라 하시며 원티 조쥬인이러니 다만 보리 불괴 점 & 요스흔 마귀에게 흘너드러가므로 인하여 표를 울너 교정하시물 청하여시나 전일의 성지를 무릅쓰지 못흔지라 (我法名大顛, 今上帝賜號半偈. 原是潮州人, 只因見佛教流入邪魔, 上表請正.) <5:1>

서 바뀔 가능성도 있지만 金閨書業堂刊本이 아닌 다른 판본을 저본으로 하여 번역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일 수도 있다.

4. 『後西遊記』 한글번역본의 특징

1) 번역 특징

한글필사본 『후서유기』의 번역 특징은 19세기 후반 번역소설 자료에서 일괄되게 나타나는 특징과 유사하다.

매회 시작할 때와 끝날 때 등장하는 開場詩와 散場詩는 모두 번역하지 않았다.

다음 회를 기약하는 ‘且聽下回分解’는 ‘초딩하회분히하라’ 또는 ‘초간하회분히하라’로 번역하였고 화제 전환시 사용하는 ‘却說’, ‘話說’, ‘且說’ 등의 발어사는 모두 ‘각설’, ‘화설’, ‘초설’ 그대로 번역하였다.

한글필사본 『후서유기』는 원전과 대비하여 줄거리의 획기적인 변화가 있거나 인물의 성격 및 이미지가 바뀌거나 하는 큰 변화의 틀은 보이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원전에 충실하고 있지만 생략과 축약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생략과 축약은 주로 묘사성이 강한 서술문,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詩詞에서 많이 생략되었으며 그 외에 대사를 줄이거나 삭제시키는 등의 축약 형태도 나타난다. 일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손티성이 니르되, “불스의 쇼견이 그르지 아니토다.” 하고 스테 낭인이 드티여 본형을 드러닉고 다시 구름을 멩에혀여 녕산으로 가서 세존기 무르려 홀시, ▼ 당삼장과 손티성이 바로 녕산으로 올라가니 당삼장은 원릭 아블의 데지라. (孫悟空道: “佛師所言不差.” 師徒遂現了原相, 復駕雲往靈山去問世尊. 正是: 天何言哉地何言, 三藏經文無乃繁. 有字何如無字好, 木窮根本水窮源. 唐三藏同孫悟空, 駕雲徑上靈山. 唐三藏原是我佛弟子.) <3:29, 제5회>

② 모든 마귀 총령마귀의 진노하여 소리흐를 보고 쏘흔 일제히 한 마디 고탈하여 위엄을 돕더니 의외 이 한 마디 고탈의 입의 소횡지 놀나 썩여 니러나며 니르디, “엇던 사람이 호령호노!” 하고 급히 방의셔 다라나오니 허다 장졸이 누의 가득히 옹위호엿는지라. ▼ 소횡지 허다 장졸을 보미 사람인지 귀신인지 아지 못호디 모다 당반게를 에워 발악호거늘 (群魔見總魔怒叫, 也就齊喊一聲助威, 不期這一聲喊叫, 早把個小行者驚醒, 一骨碌爬將起來道: “甚人吆喝!” 急走出房來, 只見許多兵將擠滿一樓, 但見: 人人仗劍, 個個持刀, 仗劍的咬牙切齒, 持刀的怒目橫眉, 這個叫快拿來碎尸萬段, 那個叫綁將去瀝血斬頭, 你跑過東, 無非做唬嚇之勢: 我跑過西, 只要揚殺伐之威, 指的指, 擲的擲, 何曾歇手? 罵的罵, 嚷的嚷, 絕不住聲, 冷颼颼, 寒凜凜, 無非鬼國英雄: 黑沉沉, 烏慘慘, 信是魔王世界, 小行者看見許多兵將, 不知是人鬼, 俱圍着唐長老作惡.) <11:13-15, 제21회>

①과 ②는 본문 중간에 나오는 詩와 詞를 번역 생략한 것이다. ①의 시구는 사건이 벌어지는 분위기와 상태를 함축적으로 담아 표현하는 성향이 강하므로 속도감 있는 서사 진행과는 거리가 있다. ②의 詞는 小行者의 눈에 비친 마귀 장병들의 모습을 형용한 것이다. 모습과 상황을 그림 그리듯 생생하게 전달할 수는 있지만 번역하지 않아도 사건전개가 달라지진 않는다. 위의 예시 외에도 매회 등장하는 詩와 詞가 번역본에서는 많은 부분 생략되었다.

詩詞 외에 등장 인물간의 대사에서도 생략 혹은 축약된 모습을 띤다. 한 인물의 대사에서 일부 문장을 빼 채 번역하기도 하고 혹은 두 사람 이상이 주고받는 대화의 일부를 생략한 채 번역한 것도 있다.

③ 저일게 니르디, “스부는 저를 아른체 마르쇼셔 스형은 원리 종일 말을 어즈러이 하고 주작의 소리긋치 싱스화복을 결단치 못호며 ▼ 가마괴긋치 근심만 보호고 깃부문 보지[치] 아니치 못호는지라 저의 말을 모다긋가의 चु풍긋치 아라시리니 ▼ 그거슨 드러 무엇호시리잇가” (豬一戒道: “師父不要理他, 師兄這張口是終日亂嚼慣的, 又不是斷禍福決生死的朱雀口, 又不是說一句驗一句的鹽醬口, 又不是只報憂不報喜的烏鴉口, 說來的話只好一半當做耳根邊吹過去的秋風, 一半當做屎孔裡放出來的臭屁, 師父聽他做甚麼?”) <16:61-62, 제32회>

④ 홀연 드르미 산중의 은ᄃ이 금고 소리 나거늘 당반게 듯고 ▼ 믄득 저일계와 스미 냥인을 덕히여 니르되, “그 노획 나오거든 너의는 모름죽이 나를 위히여 몬져 가 저로 더브리 일장을 싣호라.” (忽聽得山中隱隱有金鼓之聲. 唐半偈聽得, 便叫: “徒弟呀, 我看這個老婆婆先下戰書, 又不突然輕出, 山中卻又金鼓喧闐, 舉動大合兵法, 你們須要仔細, 不可輕敵.” 小行者道: “我也是這等想, 師父說得最有理.” 便對豬八戒、沙彌二人道: “那婆婆出來, 你二人須與我先去衝他一陣.”) <16:85, 제32회>

③~④는 대사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주고받는 대화를 빼는 등의 기법으로 축약한 것이다. ③의 저일계 대사 역시 비슷한 의미를 표현하는 구절들이므로 중간 중간 건너뛰며 번역하였다. ④는 당반게의 대사와 소행자의 대사를 번역하지 않았다. 예문들 모두 내용이 빠졌다고 해서 이야기 전개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번역자는 생략과 축약의 번역 기법을 속도감 있게 전개하고 몰입도를 상승시키는 보조 장치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번역자가 독자를 고려하여 번역한 곳도 확인된다. 원전의 ‘李老君’을 번역본에는 독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이름인 ‘티상노군’으로 옮겨 번역하였다.

⑤ 의외의 티상노군이 냥기 도동을 다리고 공중으로 지나다가 무심 중의 쇼형직 권즈를 쓰고 티상노군의 바지 밧호로 충돌히여 괴부가 상히여 좁시간 알푸물 견디지 못히여 공중의 구러질 변히다가 다형이 냥기 도동이 얹호로 와 붓드러 니르현지라 (不期恰遇著李老君帶了兩個道童兒在空裡過, 卻不提防這小行者, 套着個圈子, 持着鐵棒, 兜褲襠裡往上一撞, 直撞着李老君的卵包, 一時疼痛難禁, 呀的一聲, 一個倒栽蔥跌倒在空, 虧得兩個童兒上前扶起.) <15:89-90, 제30회>

태상노군은 道家의 始祖로 老子로 알려진 李耳(B.C.5세기~B.C.4세기 전반)를 신격화하여 가리키는 호칭이다. 원전의 ‘李老君’을 그대로 옮길 경우 누구인지 모를 수 있는 독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티상노군’으로 바꾼 것이다.

그런가 하면 『후서유기』는 조선시대 태조 이성계의 이름 ‘트’를 피휘하여 번역한 예도 보인다. 원전의 ‘트’자를 번역본에는 ‘쵸’, ‘조’ 등으로 바꾸어 번역하였다.

㉗ 틱전이 니르되, “가히 알니니 어너 썩의 강논을 시작하느뇨?” 난운이 니르되, “드르미 명년 원조의 강논을 시작한다 하느니라.”(大顛道: “可知幾時講起?” 懶雲道: “聞說明年元旦講起.”) <4:8, 제7회>

㉘ 직물을 보시하는 자는 빈궁한 스름이 홀연 부귀하고 인식한 자는 영화로오미 일조의 쇼멸하여 불교의 무궁함을 나타내고 보웅이 틀니미 업스물 드러너리오 하고(施財者, 貧兒忽生富貴; 慳吝者, 榮華一旦銷沉. 昭佛教之無邊, 彰報應於不爽.) <18:89-90, 제36회>

㉙ 원화 십스년 이월 길일이라. (元和十四年二月吉旦) <3:43, 제6회>

㉗은 음력 정월 보름을 의미하는 ‘元旦’을 ‘원조’로 번역하였다. ㉘의 ‘一’은 갑작스럽도록 짧은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하루아침에’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다. 여기에서는 ‘일조’로 번역하였다. ‘조’와 ‘조’는 한자 ‘朝’를 음역한 것이다. ㉙의 ‘吉’은 음력 초하루를 가리키는 단어이다. 여기에서는 ‘길일’로 번역하였다. ‘旦’을 피휘하여 번역한 예는 『후서유기』뿐만 아니라 『슈스유문』, 『동유기』 등의 번역 소설에도 확인되며 그 외에 다른 한글자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번역본 『후서유기』의 인명이 중국 원전과 대비하여 다르게 번역된 부분도 있다. 주인공 孫小聖의 본명은 孫履眞인데 번역본은 일관되게 ‘손이실’로 옮겨 적고 있다.

㉚ 나는 곳 동승신주 오릭국 화과산 돌 속의셔 싱혀서니 성은 손이오 명은 이실이오. (我是東勝神州傲來國花果山人氏, 姓孫名履眞.) <4:91, 제8회>

㉛ 너의 성명이 손이실이라 하니 그 이실 두 즈는 쏘흔 우리 불문 요긴흔 뜻의 합혀되 다만 명뻬를 외인이 부르미 불편하니 (你名孫履眞, 這履眞二字倒也合我佛門機旨, 只是名字外人不便呼喚.) <5:6, 제9회>

㉜ 빨리 가서 보혀되 데턴쇼성 손이실이 와서 너의 덕왕과 비견하려 한다 하라 (“快去通報! 說我齊天小聖孫履眞來拜望你大王.”) <5:16, 제9회>

㉝ 도로혀 입도홀 근과 이시며 너의 일흠은 슈줄이오 큰 스형의 일흠은 이실이니 (“倒是個入道之器. 你名守拙, 大師兄名履眞.”) <6:27, 제11회>

㉞ 당반게 니르되, “일인의 성명은 손이실이니 곳 나의 큰 데즈오” (唐半偈道: “你大師兄法名孫履眞.”) <12:67, 제24회>

金閨書業堂刊本과 本衙藏板本 모두 ‘孫履眞’으로 적고 있는데 유일하게 한글본

에서만 ‘손이실’로 적고 있다.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손이진’이 아닌 ‘손이실’로 적고 있기 때문에 오기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기존의 판본에 나오는 인명과 다른 표기를 고수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후서유기』의 대역 원전이 현존하는 판본이 아닌 새로운 다른 판본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2) 어휘 특징

(1) 의고적인 고유어와 한자어

근대 한어와 근대 국어의 특징 중의 하나는 구어 어휘, 즉 방언, 속담, 은어, 차용어들이 많이 등장한다. 이런 어휘들의 출현은 근대 한어, 근대 한국어의 어휘를 풍부하게 해준다. 또한 시대적 어휘나 방언들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이들 어휘를 고증하는 일은 의미가 있다. 여기서는 현대 중국어, 또는 현대 한국어에서 사라진 어휘와 방언의 특색을 드러내는 어휘를 『後西遊記』와 한글번역본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後西遊記』는 명말 청초에 당시 구어체로 창작된 것이므로 근대 중국어의 언어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번역본은 이보다 2백여 년 뒤인 19세기 말에 번역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당시 언어현상을 집중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9세기 말에 번역되었으므로 언어는 현대 국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고어의 흔적을 보여주는 어휘는 손꼽을 정도이다.

①-가. 입부리 긴 노애 작야의 죽이 몹으물 혐의혀 구두다리더니 싱 각진디 비블니 먹지 못혀 쏘 가서 귀신의 음식을 먹은지라 (那位長嘴老爺昨晚嫌粥薄, 咕咕嚙嚙, 想是吃不飽, 又去吃鬼食.) 〈11:24-21〉

나. 저일게 짜히 누엇다가 스미 저의 말흐를 듯고 엇지홀 길 업서 구두다리며 니르디 (豬一戒睡在地下, 聽見沙彌說他, 沒奈何, 咕咕唧唧的說道:) 〈17:92-34〉

다. 저일게 스뵈 지식을 시쥬치 말나 흐를 듯고 븐득 구두다려 니르디 (豬一戒見師父說不化齋, 便咕嚙道:...) 〈18:100-36〉

② 너는 모름죽이 본형을 드러너여 범의 입으로 드러가 저로 혀여곰 저

기 **너홀게** ㅎ여 너의 전심 죄과를 갑흔 후의 도로혀 거쫓 슝의 형상을 일우위 (你須現了原形挨入虎口, 與他**略啖一啖**, 應過你的前愆, 然後仍幻成假像.) <14:61-27>

③ 엇지 우리 디찰 디범스 얹히 와서 **긱것** 들닌 쇼리를 ㅎ노노 (“怎到我們大叢林大法師跟前**搗鬼**?”) <3:16-5>

(①가-다) ‘구두다리-’는 ‘咕咕噥噥 / 咕咕啾啾 / 咕噥’의 대역어로, “중얼거리다, 투덜거리다”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데 못마땅하여 혼자 군소리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번역소설에서는 ‘抱怨, 嘔噥’의 대역어로도 나타난다.²³⁾ 이 어휘는 『譯語類解』(1690)에 ‘구두더리-’의 형태로 처음 나타나며, 국문소설로는 『윤하정 삼문취록』에 그 용례가 보인다.²⁴⁾ ②의 ‘너홀다’는 ‘啖’의 대역어로 “깨물다, 물어 뜯다, 씹다”의 뜻이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啞 / 噬 / 齧 / 齧 / 吞噬 / 啣 / 嚼 / 嚼 / 咬 / 咀’의 대역어로도 나타난다. ③의 ‘긱것[鬼]’은 “귀신”을 뜻하는 ‘鬼’의 대역어로서 ‘귀(鬼) -+ -스+것’으로 분석된다. 1910년대까지 쓰인 용례가 있고²⁵⁾ 제주 방언으로도 남아 있다.²⁶⁾

이 밖에 특이한 한자어로 ‘납박(納白) ㅎ다’를 들 수 있다.

④가. 쇼헝지 즈리화상의 빅쥬의 **납박홀물** 보고 인ㅎ여 말을 면ㅎ여 니르디 (小行者看見老和尚**白賴**, 因改口說道:) <6:79-12>

나. 스속은 엇진 말슴이노 물각유쥬ㅎ거늘 엇지 제 **납박홀가** 두리며 텃히 비록 너르나 필경 머무는 곳이 이시리라 (師叔說哪裡話! 物各有主, 難道怕他**賴**了不成? 天下雖大, 畢竟有個住處.) <6:62-12>

다. 나는 도로혀 납박지 아니러니와 다만 두리건디 너는 납박하려 ㅎ여

23) 네 이제 ㅎ 번 눈을 맞고 이러툃 **구두다리니** 엇지 도를 어드리오 (這兩雪是大概天時, 那在爲你一個, 你却抱怨他, 不是罪過.) <평요 1:50> 즈기난 쏘 거거로 더브러 레로 보지 아니코 다만 낭즈로 ㅎ여곰 빅빅의게 비레ㅎ라 ㅎ며 도로혀 **구두다려** 니르디 (自己且不與哥子見禮, 只叫娘子與大伯磕頭, 口裏還嘔噥道.) <설월 10:59>

24) 학스의 디답지 아니를 갑갑ㅎ여 다시 **구두다려** 왈 우리 낭군이 외모풍신과 빅헝쳐시 다긱투고 스랑ㅎ으니 어디를 나모라 ㅎ리오마는 엇던 썩는 무슨 사풍증을 들녇는지 못는 말을 수히 디답지 아니니 답답ㅎ다 <윤하 26:2>

25) 글세 그런 모양이여 돈에 **긱것** 들닌 인물 무리무리 드러가네 <대매-시평 1909.10.7>

26) 오늘 하루의 일만도 어마어마하고 지긱지긱한데 그 이상 **긱것**이 따라다닌다면 못 배길 노릇이었다. <오성찬, 은밀한 기억, 진혼아리랑, 1999, 264>

도 납박지 못허리라 (“我倒不賴, 只怕你要賴也賴不得.”) 〈후서유 15:80-30〉

④-가), 나는 ‘납박ㅎ-’ 또는 ‘납박ㅎ다’의 수의적 교체형인 ④-다 ‘납박-’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딱 잡아떼다”는 뜻으로 각각 ‘白賴 / 賴’의 대역어로 쓰였다.

(2) 속담

『後西遊記』는 통속소설의 특성상 속담도 많이 등장한다. 속담들은 대개 “속어의 니르티[俗語說]”, “고어의 니르티[古語說]” 또는 “시속의 니른바[俗云]”로 시작되는데, 대표적인 것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⑤ 고어의 니르티 나라의 드러오면 범금을 못고 향년의 드러오면 풍속을 못는다 ㅎ거늘 너는 한 마디도 못지 아니코 엇지ㅎ여 담대히 이곳으로 왔노뇨 (“古語說: 入國問禁, 入里問俗, 你問也不問一聲, 爲何就大膽走到這裡來”) 〈11:82-22〉

⑥ 이는 너도 모르논도다 속어의 니르티 사롭도 여러 층이 있고 부쳐도 여러 층이 있는지라 원티 과거블도 이시며 현지블도 있고 미리블도 있느니 (“是你也不知, 俗語說得好: 人有幾等人, 佛有幾等佛, 也有過去佛, 也有現在佛, 也有未來佛.”) 〈6:12-11〉

⑦ 이는 곳 그르도다 속어의 니르티 시아비 되려 ㅎ면 시아비 덕을 타고 시어미 되려 ㅎ면 시어미 덕을 닥는다 ㅎ니 닉 셔턴의 가서 허다 신고를 바닷시므로 금일의 바야호로 죠히 누리거늘 (“這就差了! 俗語說得好: ‘公修公德, 婆修婆德’. 我往西天受了許多辛苦, 今日方纔受享.”) 〈6:57-12〉

⑧ 시속의 니른바 일기 오즈는 출가ㅎ고 구기 오즈는 등턴ㅎ다 ㅎ는 재 곳 나찰이오 (俗云: 一子出家, 九子升天.) 〈11-27-21〉

⑨ 손이실아 일인의 명을 구ㅎ미 칠층탑을 모호는 것보다 승ㅎ다 ㅎ니 네 과연 구ㅎ진디 모롬죽이 망야ㅎ여 가야 죠호리라 (“履眞呀, 救人一命, 勝造七級浮屠, 你果能救得, 須要連夜去方好.”) 〈16:18-31〉

⑩ 쇼횡직 니르티 일인이 유죄ㅎ면 일인이 당ㅎ다 ㅎ거늘 엇지 우리 삼인가지 모다 처치ㅎ려 ㅎ노뇨 (小行者道: “俗語說得好: 一人有罪一人當, 怎麼連我三個都要處治起來?”) 〈13:47-25〉

⑪ 속어의 니르티 죽지 아니려 ㅎ면 즈연 쏘 스는 법이 잇다 ㅎ니 닉 가서 일기 처쇼를 츠즈 혈각ㅎ시게 ㅎ고 다시 상냥ㅎ리이다 (“俗語說得好:

除了死法, 少不得又有活法, 且等我去尋個所在, 落了脚再算計.”) 〈8:7-15〉

⑫ 데즈야 이긱지 말 ; 나 속어의 니르디 현저히 뵈는 창은 피키 쉬오
 디 가마니 오는 살은 방비키 어렵다 하니 너는 방즈 그 노인의 말을 듣지
 못흐엿느냐 (“徒弟呀, 不是這等說, 俗語說得好, 明槍易躲, 暗箭難防, 你不
 聽見方纔這老善人說.”) 〈18:96-36〉

⑤ “入國問禁, 入里問俗.”은 “그 나라에 들면 그 나라 금법을 묻고 그 고을에
 들면 그 고을의 풍속을 따르다”는 말로 다른 나라에 가면 그곳 법령을 지키고 습속
 을 따라야 함을 비겨 이르는 말이다. ⑥ “人有幾等人, 佛有幾等佛.”은 사람도 여러
 층이 있듯이 부처도 여러 층이 있다는 말이다. ⑦ “公修公德, 婆修婆德.”은 “시아
 버지는 시아버지의 덕을 닦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의 덕을 닦는다”는 뜻으로, 노
 력하면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우리 속담에 “거미도 줄을 쳐야 벌
 레를 잡는다”, “닭도 먹이를 주어야 알을 낳는다”와 유사하다. ⑧ “一子出家, 九子
 升天.”은 한 아들을 출가시켜 스님이 되면 다른 아홉 아들이 덕을 본다는 말이다.
 ⑨ “救人一命, 勝造七級浮屠.”은 “사람의 목숨 하나 구하는 것이 칠층 불탑을 쌓는
 것보다도 낫다”는 말로 사람의 목숨을 구한 은공은 헤아릴 수 없이 숭고하다는 것
 을 비겨 이르는 말이다. ⑩ “一人有罪一人當.”은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떠맡다”
 는 뜻으로, “제 죄 남 안 준다”는 우리 속담과 같다. ⑪ “除了死法, 少不得又有活
 法.”은 죽으라는 법은 없다는 의미이다. ⑫ “明槍易躲, 暗箭難防.”은 “앞에서 찌르
 는 창은 피하기 쉬워도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은 막기 힘들다”는 뜻으로 공개된 적
 과 맞서기는 쉽지만 숨어있는 적을 막기는 어렵다는 것을 비겨 이르는 말이다.

(3) 특이한 近代漢語

『後西遊記』는 근대 중국어 중에서도 특히 오(吳) 지방 방언이 많이 쓰였는데,
 그중에는 기존의 근대한어 사전에도 등재되지 않은 어휘들이 꽤 보인다.

⑬ 가. “小行者道: ‘如今的邪魔, 最會掉經兒討口氣, 哪裡定得?’” 쇼헝지
 니르디 근일 요스흔 마귀 가장 정경의 말을 즐흐느니 엿지 짐작흐리잇가
 〈8:17-15〉

나. “好活鬼! 你纔掉經兒騙了我師父去, 怎麼又來弄虛頭騙我?” 심히 변화 만한 요괴로다 네 방즈 정경의 말노 꾸며 나의 스부를 속여 가더니 엇지 또 와 환술을 부려 나를 속이려 호노노 <8:58-16>

⑭ “我文明天王的御駕已到了, 你這幾個和尚的死期將近, 還要說甚寡嘴?” 나의 문명천왕의 어기 임의 니르러 계시니 너의 몇 기 화상의 죽을 썩가 굿잡거늘 도로혀 무슨 빈말을 호노노 <12:18-23>

⑮ 豬一戒低低說道: “這菩薩也會拉闊,” 저일계 쇼릭를 나죽이 하여 니르디 이 보살이 쏘흔 헛포장을 호노노 <18:49-35>

⑯ “衆兵將見他說話大樣, 只得叫人押到山中來見不老婆婆.” 모든 장졸이 저의 설해 유리호를 보고 다만 슝으로 하여곰 압녕하여 산중으로 와 불노파를 보게 하니 <17:33-33>

⑰ “唐長老面上已凍得白了的沒些神色, 大家直退走回五、七里方纔定了.” 당반계의 얼굴이 임의 어러 혈식이 업거늘 모다 퇴주하여 녹칠 니를 도로 와 바야호로 진정호고 <14:90-28>

⑱ “我看你們形容古怪, 情性搜搜, 定要與他違拗,” 나는 보진디 너의가 용피 고괴호고 성경이 건강하여 단정코 저로 더브러 정투홀지라 <14:83-27>

⑲-가. “聞得那冥報和尚十分憊懶, 老師父須要仔細.” 드르미 명보화상이 심분 퓌려타 하니 노스부는 모롬죽이 조심하라 <18:95-36>

나. “你這老和尚忒也憊懶, 借了釘耙不肯還人,” 이 노화상이 심히 퓌려호도다 정파를 비러오고 즐겨 쥬인기 도라보는지 아니호며 <6:78-12>

⑳ “提了一把劍向空亂砍, 小行者恐怕決撒了, 又弄一個手段,” 한 즈루 칼을 들고 공중을 향하여 어즈러이 찍거늘 쇼형지 상홀가 두려 또 슈단을 너여 <15:19-29>

㉑ “樵子見小行者問話兜搭, 便不答應, 將斧插在腰間, 挑起柴來就要走.” 초취 쇼형지의 말이 퓌진이 호를 보고 문득 답응치 아니호며 도척를 허리의 쫓고 나무를 지고 니러나 즉시 가려 호거늘 <14:80-28>

㉒-가. “若說枷, 又不疼不痛, 一發只當耍子.” 만일 착가호를 말호면 제 알푸지는 아니코 불편히 너기도 아냐 다만 희롱으로 알니니 <13:45-25>

나. “若說要跳圈倒好耍子, 但不知這個圈兒是方的?” 만일 권즈를 씨워 쥬호 노름값을 믿는다 홀진디 다만 아지 못게라 그 권지 모진 거시나 <15:73-30>

‘掉經兒’가 ⑬-가는 ‘정경의 말을 줄호-’로 ⑬-나)는 ‘정경의 말노 꾸며-’로 번역되었다. 여기서 ‘정경(正經)’은 ‘13경’을 가리키며, 엄숙하고 진지함을 뜻한다. 따

라서 '掉經兒'은 '엄숙하고 진지하게 말하다. 올바른 소리하다' 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 ⑭의 '寡嘴'는 '빈말'로 번역되어 "빈말", 즉 "속에 없는 말"을 의미한다. ⑮의 '拉闊'은 '헛포장'로 번역되어 "과대 포장"을 뜻한다. ⑯의 '大樣'은 '유리하-', 즉 "일리가 있다"의 뜻으로 번역되었으나 정확하게는 "기세등등하다"의 뜻이다. ⑰ '白了了'는 '혈식이 업-'로 대역되어 "백짓장처럼 하얗다"를 의미하며, ⑱ '搜搜'는 '견강하-'로 번역되었는데 '견강(堅強)하다'는 성질 따위가 매우 굳세고 단단하다는 뜻이 아니라 "성질이 까칠하다, 까탈스럽다"의 의미에 가깝다. ⑲ '憊懶'는 '퓌려하-/퓌려하-'로 번역되었는데 "고약하다, 불량하다" 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 조선시대 역학서인 『방언유석』 권3 '罵辱部'에 이미 '憊懶'가 중주방언(中州方言)의 하나로 예거하고 있으며,²⁷⁾ 또 소설어록해에도 여러 석의가 보인다.²⁸⁾ ⑳ '決撒'은 '상하-'로 번역되었는데, '고이하다, 잡치다, 들키다, 실수하다' 등 다양하게 쓰였는데, 여기서는 "(몸을) 다치다, 일이 잘못되다"의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㉑ '兜搭'은 '핍진이 하-'로 대역되었는데 앞뒤 문맥상 "집요하다"로 해석될 수 있다. ㉒ '耍子'는 『박통사』에도 이미 소개되어 있는데²⁹⁾ ㉒-가)는 명사 '희롱'으로 ㉒-나)는 '노름감을 민드-' 즉 "놀림감을 삼다"로 대역되었다.

(4) 중국어 차용어

중국어 차용어란 기존의 한자어와는 달리 중국어 구어체에서 온 어휘를 말한다. 오늘날 중국어는 당나라 때의 변문, 송원대 평화와 희곡을 거쳐 명청대 소설을 통해 계승 발전되어 오다가 1919년 5·4 신문화운동을 전후로 백화문 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 바 언문일치의 운동을 거쳐 오늘날 현대 중국어로 발전한 것이다. 중국어 차용어는 기존의 고려 말에 나온 『老乞大』, 『朴通事』를 조선 전기에 최세진이 번역한 『번역노걸대』(1517), 『번역박통사』(1517)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여 역학서에도 많이 발견된다. 그 이후로도 꾸준히 전래되고 번역된 명청대 통속소설

27) [배래] 江南江寧縣謂人之無賴. 〈方言類釋 卷三 14a〉

28) "憊懶" 罷敝貌: 又怪也. (語錄總覽 西遊 58a) "這家子也憊懶他撒了." 이 집을 이스를 홀 지경 이면 〈語錄總覽 西遊 85b〉 "老大憊懶." 철이 느셔 의몽하여 〈語錄總覽 西遊 67a〉 "這廝憊懶!" 이놈이 고약하 놀이로다 〈語錄總覽 西遊 69a〉

29) 戲弄之事曰耍子. 〈老朴集覽 單字解 7a〉

에서도 적지 않은 차용어가 발견된다. 중국어 차용어는 근대 중국어를 중국 현실음으로 표기한 직접 차용어와 우리말 한자음으로 읽은 간접 차용어로 나눌 수 있다. 직접 차용어의 경우 대개 중국음과 우리말 한자어의 독음의 혼합어인 경우가 많다.

㉓ 진시 발낙지 아니코 문득 분부^ㅎ여 연석을 준비^ㅎ여 오라 ^ㅎ여 큰 잔으로 년^ㅎ여 술을 부어 마시더니 (且不發落, 就叫排宴來吃. 宴來時, 大觥大爵, 滿斟滿飲.) 〈12:40-23〉

㉔ 너 음풍음기를 발^ㅎ여 문져 ㄹ 결과^ㅎ고 셔 ㅎ 다시 와 당반계를 쳐지^ㅎ미 더디지 아니^ㅎ리라 (“待我將陰風陰氣先結果了他, 慢慢再來處他不遲.”) 〈8:50-16〉

㉕ 만심환희^ㅎ여 니르^ㄷ디 과연 나의 쇼료의셔 버셔나지 아니^ㅎ니 모름죽이 일즉 하슈^ㅎ리라 (滿心歡喜道: “果不出我之所料, 須早早下手.”) 〈17:18-33〉

㉖-가. 그 초부의 말이 가장 후두^ㅎ도다 다만 일조로의 평탄^ㅎ면 곳 평탄^ㅎ홀 거시오 평탄^ㅎ치 아니면 쑤 평탄^ㅎ치 아니^ㅎ리니 (“你這樵子說話好糊塗! 總是一條路, 平就平, 不平就不平.”) 〈14:78-28〉

나. 다만 너로 ^ㅎ여곰 후두^ㅎ히 죽게 흘진디 네 비록 귀신이 되여도 나의 도법이 밍널^ㅎ물 아지 못^ㅎ리니 (“...只是叫你糊糊塗塗死了, 你雖做鬼, 也不知我道法利害!”) 〈19:40-37〉

㉗ 저 쇼거는 뉘며 저를 쓰어와 무엇^ㅎ노뇨 (“這個小哥是誰, 牽他來做甚?”) 〈11:62-21〉

㉘ 쇼지는 보건^ㄷ디 그 입이 쏘족^ㅎ고 싹이 여윈 화상이 슈중의 일기 길고 큰 막티를 가지고 입으로 호령^ㅎ미 정히 악심 가진 역귀신 ㄹ튼지라 (“小的見那個尖嘴縮腮的和尚, 手裡拿著一條棍棒, 又長又大, 口中咄咄囑喝, 像是個不服善的強遭瘟.”) 〈14:109-28〉

㉙ 즈리화상이 일 가음아는 승인으로 ^ㅎ여곰 창고의 너허 일 ㅎ 정당의 슈습^ㅎ고 중인을 도라보^ㄷ는지라 (自利和尚叫管事僧或上倉或入廩, 都一一收拾停當, 打發了衆人.) 〈6:73-12〉

㉚ 양티왕이 니르^ㄷ디 만일 진^ㅎ키 비를 구르^ㄷ친 재면 모름죽이 좁아다가 문죄^ㅎ리라 (陽大王道: “若果是他, 須要拿來問罪.”) 〈후서유 14:109-28〉

㉛-가. 네 방즈 말^ㅎ디 동승신쥬 화과산으로쥬츠 왔다 ^ㅎ니 (你方纔說從東勝神州花果山來.) 〈5:8-9〉

나. 네 방즈 정경의 말노 꾸며 나의 스부를 속여 가더니 엇지 쑤 와 환

술을 부러 나를 속이려 흐느노 (“你纔掉經兒騙了我師父去, 怎麼又來弄虛頭騙我?”) 〈8:58-16〉

다. 방즈 저분 스부의 말삼을 드르미 셔턴의 가서 활블을 비옵고 쥬히
를 구흐다 흐시니 단정코 승이신 듯흐지라 (“適聞這位師父說, 是往西天見
活佛求解的, 定是高僧.”) 〈13:13-25〉

㉓ ‘발낙’은 ‘발낙하다’의 수의적 교체형으로 ‘발낙’은 근대 중국어 ‘發落’의 대역어이며, “처리(處理)하다”의 뜻이다. ㉔ ‘결과하’는 근대 중국어 ‘結果’의 대역어로 “죽이다, 요절내다”의 뜻이다. ㉕ ‘하슈하’는 “손쓰다, 해치다”의 뜻으로, 중국어 ‘下手(xià-)’에 동사를 만드는 접사 ‘-하다’가 붙은 차용어이다. ㉖-가) ‘후두하’와 ㉖-나) ‘후두히’는 “멍청하다/멍청하게”의 뜻으로 중국어 ‘糊塗(hútu)’에 각각 형용사를 만드는 접사 ‘-하다’가 부사화 접사 ‘-히’가 붙어 이루어진 차용어이다.

㉗ ‘쇼거’는 ‘소가(小哥)’의 대역어로, ‘거(哥, gē)’는 중국어 직접 차용어이다. ㉘ ‘쇼지’는 ‘소적(小的)’의 대역어로, 신분이 낮은 사람이 신분이 높은 사람을 상대하여 자신을 낮추어 이르던 일인칭 대명사로 우리말의 ‘소인’에 해당한다. ‘지(的, de) di)’는 중국어 직접 차용어이다.³⁰⁾ 부사로는 ㉙ ‘정당이가’ ‘停當’의 대역어로 쓰였다. 근대 중국어 간접 차용어로 “사리(事理)에 합당(合當)하게”의 뜻이다. ㉚ ‘진기(眞箇)’는 ‘果是’의 대역어로는 “정말로, 참으로”의 뜻으로 번역소설에만 나타난다. 19세기 후반 중국소설 번역본에 집중적으로 보이며 ‘果是 / 端的 / 眞 / 眞個 / 眞眞 / 眞是 / 倒是 / 豈不是 / 苟’ 등의 대역어로 쓰였다. ㉛-가) ‘방즈’는 ‘方纔’의 대역어로, ㉛-나)는 ‘纔’의 대역어로, ㉛-다)는 ‘適’의 대역어로 쓰였는데, “방금, 금방”이라는 뜻으로 ‘재(纔)’를 ‘즈’로 음독한 것이다. 역시 19세기 후반 중국소설 번역본에 집중적으로 보이며 ‘剛纔 / 纔剛 / 適纔 / 初’ 등의 대역어로 쓰였다. 그 외의 한글 문헌에서는 그 쓰임새가 보이지 않는다.

30) ‘소덕 / 쇼적’의 형태로는 국문소설에는 『보은기우록』, 『옥기린』 등에 일부 용례가 보인다.

5. 결론

본고에서는 새로 발견된 『後西遊記』의 한글번역본을 소개를 주요 논지로 하여 『後西遊記』의 조선시대 유입 및 번역본의 향유 현황을 살피고 한글번역본 『후서유기』의 서지사향과 자료적 특징에 대해 고찰하였다.

조선시대 『後西遊記』의 유입은 『중국소설회모본』(1762), 윤덕희의 「小說經覽者」(1762)를 통해 18세기 중반 이전에는 이루어졌고 왕실과 사대부가에서 모두 『後西遊記』를 읽었음을 알 수 있다. 윤덕희가 읽었던 중국본 『後西遊記』는 연대가 확인되는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판본으로 알려진 金閨書業堂刊本 『後西遊記』(1793)보다도 더 이른 것이며 현전하진 않지만 金閨書業堂刊本이 아닌 다른 판본일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었다.

한글번역본은 이보다 늦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서목 자료인 「칙년명록」과 연경당 『언문책목록』을 통해 확인되지만 실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본고에서 소개하는 한글필사본 『후서유기』는 그 존재를 알려준 번역본이자 현존하는 유일본이라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한글필사본 『후서유기』는 전체 20권 11책 가운데 9책(제1, 5책 缺)이 남아 있으며 유려한 반흘림 궁체로 쓰여 있다. 책 전반에 걸쳐 수정한 흔적이 많아 번역 초고본으로 판단된다.

이야기 전개가 바뀌거나 달라지는 것 없이 원전에 충실하여 번역하였지만 차이가 나는 특이 사항도 발견되었다. 즉, 회목은 중국 판본과 거의 같지만 한 두 글자가 다르게 나타나고, 주인공 孫小聖의 본명 '孫履眞'을 아닌 '손이실'로 번역하고 있는데 한글필사본 『후서유기』의 대역 판본이 현존하는 판본이 아닌 다른 판본을 저본으로 하였기에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밖에도 근대중국어어를 반영하여 구어체로 쓰인 소설이므로 속담, 차용어가 다수 사용되었으며 근대중국어 중에서도 오(吳) 지역 방언들이 많이 쓰여 특기할 만하다. 그러나 의고적 형태의 고어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이 책의 번역 시기는 19세기 말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參考文獻〉

- 『후서유기』, 한글필사본, 9책. (간옥선 제4회 미술품경매 도록/ 2017.09.13)
- 天花才子 評點, 『後西遊記』, 中國 上海市, 上海古籍出版社, 1992.
- 天花才子 評點·于植元 校點, 『後西遊記』, 中國 瀋陽市: 春風文藝出版社, 1985.
- 江蘇省社會科學院 明清小說研究中心 文學研究所 編, 『中國通俗小說總目提要』, 中國文聯出版社, 1990.
- 江蘇省社會科學院 編, 吳淳邦 外 譯, 『中國古典小說總目提要』(제2권), 울산, 울산대출판부, 1996.
- 中國古代小說百科全書編輯委員會, 『中國古代小說百科全書』(修訂本), 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98.
- 石昌渝, 『中國古代小說總目』(白話卷), 太原, 山西教育出版社, 2004.
- 박재연 主編, 『中朝大辭典』(9책), 아산, 선문대 출판부·선문대 중한번역문헌연구소., 2002.
- 박재연·이현희 主編, 『고어대사전』(21책), 아산, 선문대 출판부·선문대 중한번역문헌연구소., 2016.
- 민관동·김명신, 『조선시대 중국고전소설의 출판본과 번역본 연구』, 서울, 학고방, 2013.
- 박재연, 『韓國所見中國小說戲曲書目資料集·十二峰記』, 아산, 선문대 중한번역문헌연구소, 2002.
- 石麟, 『略論『西遊記』續書三種』, 『明清小說研究』 1990年 第2期, 江蘇省社會科學院文學研究所·明清小說研究中心, 1990.
- 孫楷第, 『中國通俗小說書目』,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2.
- 王清原·牟仁隆·韓錫鐸, 『小說書坊錄』, 北京, 北京圖書館出版社, 2002.
- 劉洪強, 『『後西遊記』作者及成書年代考』, 『濰坊學院學報』 第11卷 第3期, 濰坊學院, 2011.06.
- 이갑남, 『『後西遊記』小考』, 『중국어문학』 46집, 영남중국어문학회, 2005.12.
- 李時人, 『西遊記考論』, 中國 杭州, 浙江古籍出版社, 1991.
- 이종묵, 『조선시대 왕실도서의 收藏에 대하여』, 『서지학보』 26, 서지학회, 2002.
- 林辰, 『明末清初小說述錄』, 中國 瀋陽, 春風文藝出版社, 1988.
- 佐芝蘭, 『明末清初『西遊記』續書研究』, 四川大學 碩士學位論文, 2007.
- 陳美林, 『『後西遊記』的思想、藝術及其他』, 『文學評論』 1985年 第5期, 中國社會科學院文學研究所, 1985.

胡益民·李漢秋, 『清代小說』(修訂版), 中國 合肥, 安徽教育出版社, 2009.

황정연, 「고종연간 집경당의 운용과 궁중 서화수장」, 『문화재』 제40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Abstract〉

A Study on the Newly Discovered Korean Manuscript “Husyeoyugui”

Park, Jae-yeon

This study presents the recently unearthed Korean translated version of *Husyeoyu gui*. The paper examines the entrance route of *Houxiyouji* 後西游记 during the Joseon Dynasty and the reception of the Korean translated version *Husyeoyugui* among the people at the time, as well as related bibliographi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resources.

Based on *Jungguksoseolhoemobon* 中国小说绘模本 and Yun Deok-hee (尹德熙)'s *Soseolgeongnamja* 小说经览者, both written in 1762, it is assumed that *Houxiyouji* entered Korea before the mid-18th century, and was read in the royal court and by the aristocratic class. Therefore, the Chinese version of *Houxiyouji* read by Yun Deok-hee dates further back than its oldest known woodblock-printed version published in 1793 as a Jinchang-Shuyetang-Kanben 金阊书业堂刊本, which indicates a now missing older woodblock-printed edition.

The existence of the Korean translated version was confirmed later in the bibliographies of *Chaeknyeolmyeongnok* and *Eonmunchaekmoknok*, bibliographic resources written in the late-19th and early-20th centuries. However, no actual copy has yet been discovered. Historical value can be attached to the Korean manuscript of *Husyeoyugui* presented in this paper, because it is unique and indicates the existence of the Korean translated version of *Houxiyouji*.

Of the 11 books containing 20 volumes of the Korean manuscript *Husyeoyugui*,

9 books have been preserved, while books 1 and 5 are missing. The books are written in a refined half-cursive calligraphic style, and display numerous traces of correction throughout the length of the copy. From this, it is inferred that the copy is the original translated script.

The translation is faithful to the original book without any changes in the storyline, with a few exceptions. For example, the chapter titles are identical to those of the Chinese woodblock-printed version, except for one or two characters, and the original name of the hero Son So-seong 孫小聖 is translated as Syon Yi-sil, not Son Yi-jin 孫履真. This allows the assumption that the present Korean manuscript *Husyeoyugui* was translated from a copy of a version other than the preserved woodblock-printed one.

Other noteworthy features are the frequent use of slang and loanwords faithful to the colloquial style of the original novel reflective of modern Chinese, especially Wu 吳 dialects. However, from the quasi-absence of archaic words, the time of this Korean translation of *Houxiyouji* is estimated to be around the end of the 19th century.

Key Words: Husyeoyugui, Korean manuscript, Translated Novel, Joseon Dynasty, Houxiyouji 後西遊記, Chinese Classical Novel.

이 논문은 2017년 10월 15일에 접수되어 2017년 11월 15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7년 11월 15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